

“연말 인테리어 수요 잡아라”… 가구·건자재社, 판촉 사활

LX하우스 31일까지 ‘지인페스타’ 상품권 등 최대 1100만원 상당 혜택

현대리바트 신규고객에 ‘웰컴쿠폰’ **KCC** ‘스마트 테크 클럽’ 공식출범 **한샘** 27일까지 ‘썸워크’ 추가 진행

건자재·가구 회사들이 가을 막바지에 고객들을 잡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방산업인 주택시장이 가뜰이나 침체된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15일 부동산대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관련 시장에 더욱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16일 관련기업들에 따르면 LX하우스는 이달 31일까지 LX Z:IN 브랜드 최대 할인 행사인 ‘지인페스타’를 펼치고 있다.

LX하우스는 지인페스타를 통해 ▲최대 300만원 상당 패키지 구매 시 혜택 ▲인테리어 계약금액별 최대 5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 증정 ▲인테리어 5000만원 이상 계약 고객 모두에게 최대 300만원 상당 경품 추첨 혜택 등 최대 1100만원 상당의 혜택을 선사한



LX하우스 지인스퀘어 전시장을 방문한 고객들이 바닥재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LX하우스

다. 특히, 창호의 경우 더블로이 유리를 적용한 ‘LX Z:IN 창호 뷰프레임’과 중문을 패키지로 함께 구매할 경우 최대 125만원 상당의 할인 및 상품 증정 혜택을 제공해 노후 창호 교체 공사 수요를 적극 공략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계열인 현대리바트는 12월4일까지 침대, 매트리스를 중심으로 가을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온라인몰 신규 회원가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구매 금액에 따라 웰컴 쿠폰을 선물하고, 세계가구 구매 고객을 위한 앱전용 장바

구니 쿠폰도 제공한다. 페스티벌 기간 동안 침실, 거실, 서재·자녀방, 식탁 등의 제품을 대상으로 최대 50% 할인 행사도 펼친다.

또다른 계열사인 현대L&C는 최근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 오프라인 체험·상담·구매 공간인 ‘STUDIO H’를 새로 오픈, 고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KCC는 자율주행 물류로봇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 바닥재 전문 파트너 인증 네트워크인 ‘KCC 스마트 테

크 클럽(KCC SMART TECH CLUB)’을 공식 출범하고 시장을 추가로 공략하고 있다. KCC는 또 공식 창호 대리점의 비교 견적을 통해 고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공이 가능한 O2O 플랫폼인 ‘이맥스 클럽 홈페이지’를 새로 열었다. 이를 통해 대리점 고객들은 역경매 방식의 스마트 견적으로 투명한 가격 비교에 합리적 시공까지 원스톱으로 창호를 구매할 수 있다.

한샘은 지난날 창립 55주년을 기념해 하반기 최대 세일 행사인 ‘썸페스타’를 진행한데 이어 이달 27일까지 ‘썸워크’를 추가로 진행한다. 썸워크에선 겨울 옷 정리를 위한 수납장과 불박이장 등을 최대 30%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공간 활용도가 높은 수납침대도 저렴하게 판매한다.

신세계백화점 계열인 신세계가사는 창립 43주년을 맞아 오는 11월9일까지 감사 할인전을 펼친다. 단품 할인, 패키지 특가, 매장 단독 행사까지 폭넓은 혜택을 마련한 이번 행사에선 특히 결혼과 이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소파, 침대, 매트리스, 다이닝 가구 등 생활 가구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신

세계가사의 스테디셀러 제품인 수면 브랜드 ‘마테라소’는 이번 가을 눈에 띄는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몬스는 이달 말까지 ‘가을, 가구에 빠지다’ 행사를 통해 소파(신제품), 침대 및 매트리스, 식탁 등 다양한 제품을 15%에서 20% 저렴하게 판매한다. 시몬스도 오는 11월2일까지 ‘블랙 시몬스 데이’ 프로모션을 통해 공식 온라인몰에서 매트리스, 프레임, 베딩류 등을 할인 판매하고 있다.

한편 에이스침대는 내년 12월 말까지 산불 피해 지원 캠페인을 진행하며 ESG 경영을 추가로 펼친다. 이는 산불이 심했던 경북 안동, 영덕, 청송, 의성, 영양 지역 고객들에게 매트리스 등 구매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상 점포는 에이스침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을·겨울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수요를 잡기위해 기업들의 판촉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조선업계 ‘고부가선박 효과’ 수익구조 개선

3분기 영업이익 최대 1200% 급증
3년치 이상 고선가 수주물량 확보

조선업계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타결에 따른 일회성 비용 부담에도,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수주 물량이 순차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면서 수익 구조가 점진적으로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초호황기를 맞은 국내 조선업계는 전반적으로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3분기 성적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HD현대중공업의 3분기 매출을 4조150억원, 영업이익을 4810억원으로 추정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1.2%, 영업이익은 133.3% 증가한 수준이다. 삼성중공업의 영업이익은 2178억원으로 81.7% 늘고, 한화오션은 3488억원으로 1263.5%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 3사는 역대 최고 수준의 조건으

로 임단협을 마무리하면서 300억~400억원 수준의 일회성 비용이 반영됐지만 고부가가치 선박 인도 확대에 따라 수익 구조가 한층 안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조선사들은 현재 3년치 이상의 고선가 수주 물량을 확보한 상태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인도 본격화에 따라 수익성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수주에서 인도까지 2~3년이 소요되는 산업 구조상 과거에 체결한 고단가 계약이 이제 매출로 반영되면서 마진율 개선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신규 건조 선박의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는 2021년 약 127포인트 수준에서 지난해 말 약 189포인트까지 상승했다. 불과 3년 만에 지수가 50% 가까이 오르며 고선가 수주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는 한국 조선사들이 앞으로도 3년치 인도 물량의 수주잔고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을 중

심으로 한 글로벌 LNG 프로젝트 본격화와 노후 스티터빈선 교체,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 규제 강화등으로 친환경 선박 발주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 확대는 상선뿐 아니라 해양방산 분야로의 진출 가능성을 열고 있다.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선박법(SHIPS Act)’에는 전략상선단 250척 구축, 미국산 선박 운송 비중 확대, 현지 조선소 투자 세액공제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조선사들은 미 해군 지원함과 전투함 MRO(정비·보수), 함정 블록 건조 등 다양한 프로젝트 수주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조선 3사 모두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수주전망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각사의 규모 차이에 따라 이익률 편차는 있더라도 업계 전반의 수익성은 개선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15일 대전 SK온 미래기술원에서 ‘제1회 미래기술원 학술대회’가 열린 가운데 주요 참석자와 SKON 연구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온

SK온, 연구원 아이디어 발굴·교류 장 열어

미래기술원 학술대회 개최

SK온이 미래기술원 학술대회를 열고 기술 리더십 강화에 나섰다. 연구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인 기술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지식 교류의 장(場)으로 활용해 연구 중심 조직문화를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SK온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래기술원에서 ‘제1회 미래기술원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시스템, 공정, 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원들이 배터리 품질과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기술과 공법을 제안하는 자리로 미래기술원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이 논문을 출품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대상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활용해 용접 강도를 예측하고 불량 검출 방법을 제시한 연구팀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고강도 알루미늄 호일의 캔버(camber) 개선 방안을, 우수상은 셀 방치시 성능 저하 원인을 규명한 연구가 각각 수상했다. /원관희 기자

코웨이·교원, 日 굿디자인 어워드 ‘본상’

코웨이 제습기, 교원 웰스 정수기가 ‘2025 일본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나란히 본상을 수상했다.

16일 관련 기업들에 따르면 이번에 본상을 받은 ‘코웨이 인버터 제습기 23L’는 콤팩트한 크기에도 하루 최대 23L의 강력한 제습량을 구현한다. 자사 기존 모델 대비 약 3배 빠른 속도로 약 30분 만에 쾌적 습도에 도달하며 6.1L의 대용량 물통을 탑재해 물통 비움 횟수를 줄인 것이 특징이다.

코웨이 인버터 제습기 23L는 깔끔하고 간결한 형태에 중간 분할선을 더해 심미성을 높였으며, 부드러운 아이보리와 베이지 컬러로 어떤 공간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코웨이 황진상 디자인랩 연구소장은 “코웨이는 심미적으로 만족감을 주는 동시에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디자인을 추구한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고객의 일상에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교원 웰스도 직수정수기 ‘슬림원’이 2025 일본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받았다. 특히 이번 수상으로 슬림원은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IF·레드닷·IDEA·굿 디자인 어워드)를 석권하며 디자인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슬림원은 자연을 모티브로 한 미니멀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의 코크를 채택해 지속가능한 디자인 철학을 담았다. 교원 웰스는 복잡한 요소를 덜어내고 공간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디자인이 일본식 미니멀리즘의 미학과 맞닿아 심사위원단의 호평을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김승호 기자

‘상생페이백’ 415만명에 2414억 지급

중기부, 1인 평균 지급액 5만8155원

상생페이백 접수 한달간 1058만명이 신청했다. 9월 페이백으로 총 2414억원을 지급했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상생페이백’은 9~11월 월별 카드소비액이 작년 월 평균 소비액보다 많을 경우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달 15일 접수를 시작한 상생페이

백은 한 달 만에 신청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청 비중이 54%(570만)로 절반을 상회했고 부산(6.4%), 경남(6.0%)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25.4%), 40대(24.8%), 50대(19.6%) 순으로 높았다.

지난 9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국민 중페이백 지급 대상은 약 41%인 415만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5만8155원이다. /김승호 기자